

第140回서울特別市議會(臨時會)

文化教育委員會會議錄

第 1 號

서울特別市議會事務處

日時 2003年3月14日(金) 午前10時

場所 文化教育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서울特別市體育會事務處業務報告

審査된案件

1. 서울特別市體育會事務處業務報告 2面

(10시 19분 개의)

○委員長 金基星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5조제1항에 의거하여 제140회 임시회 제1차 문화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때는 바야흐로 춘삼월이 오는 길목에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제140회 임시회 기간 중 본회의장에서 3일 동안 열심히 의정생활을 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특별히 서울시정과 교육행정에 관하여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유선목

위원님, 정연희 위원님, 이치화 위원님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는 우리 위원회가 서울특별시체육회 등 3개 기관의 업무보고와 교육청 조례안 1건 심의, 현장방문 5개소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명원 서울특별시체육회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6대 의회 개원 이후 우리 위원회에서 처음 대면하고 업무보고를 청취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체육회는 서울의 체육발전과 건강한 시민생활의 증진을 위하여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단체임을 인식하시고 서울체육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획을 꼼꼼히 챙기고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特別市體育會事務處所管業務報告

(10시 21분)

○委員長 金基星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체육회사무처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명원 사무처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事務處長 李明源 서울시체육회 사무처장 이명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울시체육회를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문화교

육위원회 김기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시체육회가 올해로 50주년을 맞았습니다. 지금 세
종문화회관 별관에서 50주년 역사전을 하고 있습니다. 우
리 시의회 부의장님이 저희 당연직 부회장이시고 그 다음
에 문교위원장님이신 김기성 위원장님이 당연직 이사십니
다. 그제 개막식을 할 때 존경하옵는 김기성 위원장님이
나오셔서 테이프 커팅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
니다.

체육회는 50주년인데 체육회사무처장은 취임한 지 한
달 반이 되었습니다. 아직 배우고 있는 중이고 여러 가지
로 부족한 점이 많습디다만 서울시체육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미력이나마 열심히 할 것을 위원님
들에게 약속을 드립니다.

먼저 저희 서울시체육회 간부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
니다.

(간부소개:총무부장 김용택, 운영부장 서정길, 총무팀장
이종철, 기획팀장 강현길, 훈련팀장 이창환, 운영팀장 김양
식)

저희가 부장 2명에 팀장 4명 등 24명의 직원으로 체육
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고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

(보고)

서울특별시체육회사무처 업무보고

(보고중단)

(뒤에 실음)

○委員長 金基星 사무처장님, 물론 주요업무계획을 세밀하게 보고해 주시는 것도 좋지만 가급적이면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것을 물어보실 때 그때 보충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事務處長 李明源 알겠습니다.

(보고계속)

서울특별시체육회사무처 업무보고

(뒤에 실음)

저희들 체육회 임직원은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을 받아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런 보고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을 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基星 이명원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체육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직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먼저 밝힌 후 성실하면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귀환 위원님.

○金貴煥 委員 김귀환 위원입니다.

1쪽에 보면 법적근거란에 국민체육진흥법 제23조 해서 1항과 4항이 있는데 4항이 아니고 2항 같은데, 대한체육회

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부 또는 지회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부와 지회는 어느 점이 틀린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부가 되겠습니까, 지회가 되겠습니까?

○事務處長 李明源 서울시체육회는 대한체육회 서울시 지부입니다.

○金貴煥 委員 호칭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닌데, 지금 제 2조 조직란에 보면 서울특별시체육회라고만 되어 있죠?

○事務處長 李明源 네.

○金貴煥 委員 그 위에 대한체육회가 있고 서울특별시체육회가 있는데 체육회지부라는 말을 써야 되는데 거기에 지부라는 말이 안 들어가 있네요? 그렇다는 말이고요. 그것은 판단을 하셔서 호칭에 대해서 해 주시고요.

3쪽에 수탁운영사업이 있죠? 사무처 운영지침란에 수탁운영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성동 구민종합체육센터, 열린금호교육문화관, 시청운동부 관리, 이촌 롤러스케이트 이것을 운영하는데 그쪽에서 운영을 해 달라고 부탁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까, 자원해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까?

○事務處長 李明源 이촌 롤러스케이트장은 저희가 입찰을 받습니다. 다른 체육센터, 문화회관은 구청에서 요청이 있었습시다.

○金貴煥 委員 이촌 롤러스케이트장 입찰을 보셨다고 했는데 거기가 쉽게 표현해서 흑자입니까, 적자입니까?

○事務處長 李明源 흑자도 적자도 아니고 현상유지입니다.

그리고 한 말씀 드리면 수탁운영사업에서 저희는 이윤

을 남기지 않습니다.

○金貴煥 委員 그러면 부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열린금호나 성동구민종합은 흑자도 적자도 아니라고 하는데 수입과 지출이 이퀄입니까?

○事務處長 李明源 아닙니다. 뭐냐면 성동 구민종합체육센터, 열린금호교육문화관도 흑자입니다. 흑자인데.....

○金貴煥 委員 제가 말씀드릴게요.

적자를 보는 것은 위탁을 받으면서 있을 수가 없는 운영 문제가 되겠고요. 흑자를 보는 부분이 만약에 여기에 있다고 하면 흑자 부분에 대한, 재정에 관한 수입면이 전혀 기록이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지금 여기 재정도를 보면 우리 처장님께서 11억 정도 깎여서 경기도보다 50억이 어떻게 해서 2등을 한다 이런 식의 취지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것을 말씀하시기 전에, 그렇단 말이에요. 이 재정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다는 말이에요, 이 업무보고란에.

○事務處長 李明源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가 흑자를 내는데 저희는 운영만 하고 있습니다.

○金貴煥 委員 운영을 하니까 흑자냐 적자냐.....

○事務處長 李明源 흑자가 나는데 그 흑자되는 부분은 예를 들어 성동구민종합체육센터, 열린금호교육문화관은 성동구청 예산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흑자가 난 부분을 성동구청으로 되돌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관리하는 비용, 그 인원에 대한 인건비만 저희들

이 구청에 요청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8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매년 흑자를 내서…….

○金貴煥 委員 그런데 그 흑자부분을 그쪽 구청에 쥐야만 됩니까? 운영하는 자가 갖는 것 아닙니까?

○事務處長 李明源 아닙니다. 저희가 수탁운영이고요.

○金貴煥 委員 수탁은 그렇다고 하고 입찰을 본 롤러스케이트장 수입은 어떻게 합니까?

○事務處長 李明源 이촌 롤러스케이트장 같은 것은 입찰이라고 그러지만 사실상 형식이 입찰이지 말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안 되는 것을 말아서 저희가 지금 1년 됐습니다. 하는데 안 되는 부분을 체육회가 어떤 공적기관이니까 말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金貴煥 委員 그렇게 말씀하시면 드릴 말씀도 없고요.

다시 1쪽을 봐 주세요. 1쪽을 보면 국민체육진흥법 제 17조제2항에 대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기에 연구비 일부를 보조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국가라는 얘기는 대한체육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事務處長 李明源 그렇습니다.

○金貴煥 委員 대한체육회에서는 왜 보조를 안해 줍니까?

○事務處長 李明源 대한체육회에서 보조가 있습니다.

○金貴煥 委員 그러면 서울시에서 61억의 보조금만 가지고 지금 여기 예산에 편성돼 있는데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예산편성 왜 여기 기록이 안 됐습니까?

○事務處長 李明源 지금 서울시체육회는 99%가 서울시 교부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형식적으로 대한체육회에

서…….

○金貴煥 委員 지금 지원받는다면서요? 지원 받는데 내역이 61억 속에 안 들어갔잖아요, 서울시 예산만 들어갔지.

○事務處長 李明源 작년에 3억 1,500을 받았습니다. 매년 3억 정도의 대한체육회 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金貴煥 委員 그래요, 그러면 2001년도 56억, 2002년도 72억, 2003년도 61억이라고 예산을 썼는데 이 예산 속에 지원 받는 2·3억 그 예산이 들어가 있는 예산입니까?

금년도 2003년도 61억원 예산 속에, 국가에서 보조받는 그 금액이 61억 속에 들어갔느냐고요?

○事務處長 李明源 안 들어 있죠.

○金貴煥 委員 왜 안 들어갔습니까, 그 돈 안 씁니까?

○事務處長 李明源 여기 서울시의회고 서울시에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金貴煥 委員 지금 이상하다. 내가 이해를 못하나 모르겠는데 지금 서울특별시체육회 지부에서 쓰는 예산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데 국가라고 하는 대한체육회에서 지원해 주는 금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事務處長 李明源 작년에 3억이었습니다.

○金貴煥 委員 금년에 얼마 예산 승인 받았습니까?

○事務處長 李明源 올해 3억 1,500만원 교부받기로.

○金貴煥 委員 그러면 지금 업무보고란에 보면 61억에 대한 쓰임새를 가지고 말씀하셨지 3억 1,000만원에 대한 쓰임새는 안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 돈 어디다 쓰려고

그런니까?

○事務處長 李明源 제가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지만…….

○金貴煥 委員 따라서 서울특별시체육회 지부회에서 쓰는 예산은 국회에서 지원해 주든 자치단체인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든 합하면 64억 정도가 되는데 64억원에 대한 예산승인을 가지고 말씀하셔야지 서울시에서만 지원해 준 61억원에 대한 업무보고만 하면 이런 업무보고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무처장님이나 사무국장님은 대한체육회에 3억 원 예산만 가지고 서울시체육회 지부에서 쓰고 있다고 업무보고할 것입니까?

○事務處長 李明源 죄송합니다.

미처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아직 한 달 반 정도밖에 안 되어서 업무를 잘 모르구요.

○金貴煥 委員 됐어요. 사무처장님 말씀하시지 말고 86년도에 부임해 온 총무부장님 말씀해 보세요.

왜 이런 업무보고를 기록했어요?

○事務處長 李明源 총무부장이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金貴煥 委員 그런 업무보고가 어디 있어요? 실질적으로 64억 1,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있는데 우리한테는 서울시에서 서울시의회이기 때문에 61억 예산만 가지고 보고를 하고 만약에 두 분이 대한체육회에 가서 업무보고할 적에 거기에서 지원해 준 3억 1,000만원에 대한 업무보고만 하실 거냐 이말이에요.

○事務處長 李明源 대한체육회는 업무보고가 없습니다.

○金貴煥 委員 있다고 하면 지금 제 얘기 논리가 맞잖아요.

○事務處長 李明源 죄송합니다.

○金貴煥 委員 무슨 이상한 소리하셔. 지금 말입니다 누구 말마따나 이쪽으로 한번 더 얘기합시다.

지금 93년도 1월에 부임해 오셨는데 이런 업무보고 끝나셨어야 돼요, 사무처장님. 지금 이것 훑어보고 업무보고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事務處長 李明源 제가 아까 송구스럽습니다.

○金貴煥 委員 그렇다고 웃으면서 한가하게 말씀하세요?

○事務處長 李明源 한달반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金貴煥 委員 됐어요, 총무부장님 대답하세요.

○事務處長 李明源 총무부장님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基星 잠시, 지금 김귀환 위원님께서 지적을 아주 적절하게 잘해 주신 것입니다.

사무처장님께서 오신 지 한 달 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해는 하겠지만 앞으로 업무보고 하실 때는 국비 삼억천 얼마와 시비 61억에 대한 것을 일목요연하게 보고를 해 주시고 지금 김귀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역 삼억 얼마 부장님께서 상세하게 보고를 해 주세요.

○總務部長 金容澤 서울시체육회 총무부장입니다.

저희가 그 동안 시의회에 보고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자료가 미비해서 양해를 바랍니다.

저희 2003년 총 예산이 65억 2,4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서울시 보조금이 61억원이고 대한체육회에서 나오는

국고보조가 3억 1,500만원입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오는 보조금이 2,800만원 그리고 기타수입이 8,000만원 정도 해서 총 65억 2,4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업무보고를 처음하기 때문에 서울시의회는 서울시 보조금만 가지고 보고를 하는 줄 알고 그렇게 작성했습니다.

잘못된 점 용서해 주십시오.

○金貴煥 委員 됐습니다. 앉으세요, 자리에.

인쇄물 16쪽을 봐주세요.

재정자립을 위한 수입사업 추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호칭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재정자립을 위한 수익사업추진 타이틀만 놓고 볼 적에 재정자립도를 위해서 뭔가 서울체육회 지부에서 수입원을 가지고 얘기한다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이 용어를 본다면.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밑의 내용을 보면 무슨 수입에 대한 재정자립도에 대한 얘기는 없고 추진방향, 추진계획, 그러면 중단 말이에요.

추진방향과 추진계획도 수입에 대한 추진방향, 추진계획 내역이 들어가지 않고 솔직한 얘기로 저희들 읽어도 되고 웃어도 될 내용만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재정자립도를 위한 수익사업추진이라고 하지 말고 ‘재정’ 자를 앞에도 빼셔야 돼요. 향후 서울특별시체육회 지부에서 수익사업추진이라든가 이런 말을 쓰셔야지 재정을 수익한다는 말 내용은 전혀 없단 말이에요. 호칭이 그렇죠, 인정합니까?

○事務處長 李明源 인정합니다.

○金貴煥 委員 저도 이것 지적을 하기 위해서 3시간 동안 공부하고 왔는데 제가 얘기 잘못하면 복싱선수도 있고 태권도 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혼나리라 생각하고 점잖게 제가 질문을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은 65억을 가지고 61억이라고 업무보고 하는 사람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서울시 문화교육 상임위원회 위원들을 무시하는 처사밖에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성실한 답변을 요한다고 우리 위원장님이 몇 번을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부분을 최고 장으로서 인정하실 생각은 안하고 오히려 질문한 사람이 무안할 정도로 웃으면서 말씀하시는 그 태도가 맘에 안 들어요.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 보아하니까 저보다 연세가 두살 어립니다. 이런 얘기 해도 서운하지 않으리라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대화는 상대방 얼굴을 보시면서 정성을 다해서 앞으로는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基星 지금 김귀환 위원님께서 조금 격하시기는 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다 성실한 답변이 미흡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사무처장님께서 이런 공직에 오신 지 1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만 이런 점을 많이 참고하셔서 앞으로는 성실한 답변해 주시고 조금 전에 총무부장님께 지적했듯이 예산은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반드시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홍식 위원님.

○金興植 委員 김흥식 위원입니다.

우리 김귀환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잘못을 처음 업무보고 이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시인하셨는데 시인한 내용에 대해서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 때 우리가 동계대회에서 3위를 하고 하계대회 2위라고 그랬죠?

○事務處長 李明源 네, 작년엔 2위 했습니다.

○金興植 委員 그런데 그렇게 부진한 것이 서울에서 1위를 다 차지해야 되는데 부진한 내용을 어디다 두시나요?

○事務處長 李明源 우리 운영부장이 전문가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金興植 委員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죠? 그러면 지금 현재 서울시내에서, 우리가 그래요. 좋은 운동은 좋은 장소 좋은 시설에서 운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미흡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별도로 자료를 하나 해 주시고, 우리 서울시내에 산재해 있는 수탁운영하거나 직영하는 체육시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보수해야 될 사항 또 소요예산, 대강이죠. 그 내용을 죽 적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목동실내링크장에 대해서 지난 번 예산이 배정됐어요. 얼마냐면 3억 3,400만원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진행상황은 어떻게 돼 가고 있는가 답변해 주실래요?

○事務處長 李明源 목동실내링크장은 체육회 소관이 아

니고 서울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金興植 委員 그러면 현재 우리가 수탁운영하고 있는 성동구민종합체육센터라든가 열린금호교육문화관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시급을 요하는 보수를 해야 될 사항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事務處長 李明源 그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 총무부장이 대신 답을…….

○金興植 委員 아직 업무파악을 많이 못했어요?

○事務處長 李明源 죄송합니다.

○金興植 委員 이것을 잠깐 답변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물론 아까 목동실내링크장은 시설공단 관리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우리가 체육회에서 관여하는 시설에 대해서 우선 우리가 시급을 요하는 사항, 우리가 수리해야 되고 어떤 역할을 말하자면 실내운동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필요해야 되는데 예산요구가 지난 번 금년 2003년도 예산에 안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다는 뜻인가요?

○事務處長 李明源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는 운영만 맡고 있습니다. 시설의 개·보수…….

○金興植 委員 운영을 맡더라도 어떤 어떤 시설이 있기 때문에 보수를 해야만이 된다 했을 때 직접적으로 승인 안 맡더라도 시설공단에 연락해서 서로 공조를 해서 그것을 하도록 해야지 나는 운영만 맡고 상관없다, 시설 자체가 썩어 망가져도 필요 없다 그렇게 답변하면 안되죠. 그렇게 무관심하게 말하면 안되죠.

○事務處長 李明源 죄송합니다.

○金興植 委員 체육회에서 계획이 올라가서 이러 이런 시설은 시급을 요한다든가 무엇을 고쳐야 한다든가 하는 안을 여기에서 만들어서 서로 공조를 해야지 이것 내 업무 아니다 이러면 안되죠.

○事務處長 李明源 구체적인 것은 서면으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興植 委員 서면으로 어떻게 보고를 해요?

○事務處長 李明源 제가 아까 송구스럽게도 취임한 지 일천해서 내용파악을 못했고요. 성동의 체육관하고 열린 금호체육관은 성동구청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혹시 개·보수할 사항은 성동구청에…….

○金興植 委員 아무리 그쪽에서 예산이 투입된다 하더라도 잘되고 잘못된 것은 지적을 해서 시정해야 할 것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모든 사항을 지금 현재 맡은 자가 얼마 안돼서 업무파악을 못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오늘 업무보고가 필요가 없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내용파악도 못한 사람한테 업무보고를 받고 있어요? 허수아비입니까?

○委員長 金基星 잠시, 사무처장님께서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한 것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만 뒤에 계신 부장님들이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을 처장님이 답변하기 어려울 때는 부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략하게 답변하세요.

○金興植 委員 서면답변 하신다고 했는데요, 시설별로 꼭 필요하다, 모두에 말씀드렸습시다만 성적부진도 그 하나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나와 관계가 없

기 때문에 시설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이것은 말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체육회 업무를 관장하고 계신 분들이 무슨 무슨 시설은 도저히 사용할 수 없다, 시급을 요한다든가 했을 때는 서로 간에 유기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져서 그것이 예산으로 반영돼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계올림픽에서 3위를 했고 하계올림픽에서 2위를 했다, 서울이 대한민국 전체의 얼굴인데 아까 100점 차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체육시설 면에서 얼마만큼의 뭐가 뭐가 하자가 있고 뭐가 얼마가 예산이 소요가 되겠는데 이런 것을 어디에 올렸다, 추진하도록 하겠다 한다든가 이런 것이 정확하게 나와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을 서면으로 해 주세요.

○事務處長 李明源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基星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계락 위원님.

○崔桂洛 委員 최계락 위원입니다.

우리 사무처장님 말고 총괄하시는 분이 누구신가요? 총무부장님이세요? 총무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아무래도 사무처장님이 업무과약이 안된 것 같아요.

아까 총 예산이 65억이라고 했죠? 대한체육회하고 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이 2,700입니까?

○總務部長 金容澤 2,800만원입니다.

○崔桂洛 委員 총 65억요?

○總務部長 金容澤 네, 65억입니다.

○崔桂洛 委員 그러면 65억 중에서 서울시체육회에서

인건비나 이런 것은 안 나갑니까?

○總務部長 金容澤 서울시에서 경상비 8억 5,000 중에서
서.....

○崔桂洛 委員 그 다음에 사무실유지비, 관리비 해서 토
털 얼마죠?

○總務部長 金容澤 경상비 8억 5,000 중에서 인건비가 5
억 7,000만원이고 일반운영비가 2억 7,500 들어가 있습니
다.

○崔桂洛 委員 나머지는 얼마예요? 57억 정도 되죠?

○總務部長 金容澤 네, 56억 1,200만원입니다. 예비비가
4,000만원 있습니다.

○崔桂洛 委員 이 돈 가지고 체전 준비하고 그러는 거
죠?

○總務部長 金容澤 네.

○崔桂洛 委員 왜 그러냐면 업무보고서에 보면 이런 것
이 다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서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쭙
본 것이고.

사실 본위원이 체육회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
니다. 여기 청소년과장님도 나와 계신데 사실 물론 경기
도가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서울
이 대도시이고 대한민국의 수도이면서도 예산지원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먼젓번에 상임위원회
할 때에 현실화를 시켜주자 하는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
다.

그런데 문제는 본위원이 그런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지
만 경기도에 임하는 아이들 말입니다. 학생들이나 일반인들

보면 종목별로 들어갈 예산투입 될 부분이 틀리는데 일괄적으로 배정을 해 주더라고요. 그 다음에 시기가 안 맞아. 예산을 적절하게 투입을 시켜서 아이들이, 물론 적은 예산이지만 그나마라도 걱정된 시기에 빨리 빨리 투입을 해서 진짜 실수요자인 선수들한테 가져야 하는데 일선에서는 상당히 고충이 많다고 해요.

한번 봅시다. 만약 육상이다, 육상은 지원될 것이 뭐가 있겠어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 總務部長 金容澤 육상선수 중에서 저희가 전국체전 예선대회 끝나서 6월 말중에 서울선수단으로 최종 확정됩니다. 그때 60일간 훈련비를 지급합니다.

○ 崔桂洛 委員 1인당 얼마씩 줍니까?

○ 總務部長 金容澤 1인당 45만원 정도 줍니다.

○ 崔桂洛 委員 60일간에 1인당 45만원요?

○ 總務部長 金容澤 네.

○ 崔桂洛 委員 그러면 하루에 얼마씩 쳐주는 거죠?

○ 總務部長 金容澤 하루에 45일간 1만 2,000원씩입니다.

○ 崔桂洛 委員 그렇다고 치고요.

거기에는 식비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 總務部長 金容澤 일부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 崔桂洛 委員 나머지는 자비로 해야 되나요?

○ 總務部長 金容澤 나머지는 학교나 경기단체에서 자비로 하고 저희는 일부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다.

○ 崔桂洛 委員 육상은 그렇다고 치고 사격 있죠? 사격은 얼마 지원해 줍니까?

○ 總務部長 金容澤 똑같습니다.

○崔桂洛 委員 다 똑같아요?

○總務部長 金容澤 네, 저희 선수단이 1,380명 정도 출전하는데 전 종목에 1인당 나가는 훈련비가 다 똑같습니다.

○崔桂洛 委員 그러면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보세요. 저희보다도 더 전문가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체육회에 계신 분들은 그 직에 오래 종사를 하시면서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인데 사실 우리가 보더라도 육상에는 별로 크게, 러닝화하고 체육복 그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사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사격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탄환이나 이런 것이 전부 외재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거기에 45만원을 지원해 준다? 그리고 나가서 우승을 해라?

사실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거기 출전하는 아이들에게 엄청난 부담감이예요. 그네들은 거기에 가서 우승을 못하면 대학을 못 가요. 학부모가 거기에 목을 매고 있다고. 학교에서 무슨 지원을 줘요, 다 학부모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와야지. 45만원 가지고 체전을 나가라고 한다면, 그 탄환 한 발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부장님 아세요?

○總務部長 金容澤 탄환마다 틀립니다. 저희가 훈련비 외에 훈련용구나 장비를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崔桂洛 委員 아까 처장님께서 헝그리정신도 말씀하셨지만 물론 운동선수들에게 헝그리정신도 필요하지만 지금은 예전하고 틀려요. 과학적으로 나가야 되고 모든 장비가 좋아야지만, 우리가 육상도 이봉주 선수가 신는 신발

하나 개발하는 데 몇 억씩 들어가지 않습니까? 0.1초라도 단축하기 위해서.

문제는 뭐냐면 우리 서울시 지원파트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각 종목별로 구분을 해서 해 주어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해 주고 있어요. 아니 그 돈 가지고 아이들보고 여인숙에서 자라는 거예요, 텐트를 치고 생활하라는 것입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러면 결국 그 돈이 어디에서 이루어지겠어요? 부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總務部長 金容澤 저희가 선수훈련비 지원 외에 훈련용구지원비와 특별지원비가 종목별로 배정돼서 나갑니다. 종목특성상 예산을 일부지원을 해 줍니다.

○崔桂洛 委員 최소한 서울시를 위해서 전국체전에 나가고 전국 시·도대항 대회를 나갈 때에는 모든 지원을 서울시에서 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개개인이 연습을 하고 돈을 들여서 하든 학교에서 육성을 해 주든 그 이전 문제는 학교나 학부모의 책임도 있고 본인의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서울시를 위해서 뽑혀서 서울시를 위해서 나갔을 때는 서울시가 충분한 조건을 맞추어줘야 되고 주변환경을 맞추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산타령만 자꾸 하지 마시고.

정말 서울시가 종합 1위를 하려고 하는 마음만 있다면 다른 데 스폰서 못 받아요? 다른 데 보면 일반기업들 스폰서 잘도 받아오더만 왜 우리 서울시체육회만 그렇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사무처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어요?

○事務處長 李明源 소위 체육회 업무가 엘리트체육, 학교체육진흥 육성인데요, 그래서 체력이 있고 경제력이 단단한 분들을 단체장으로 영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를 드렸습시다만 지금 저희가 46개 경기단체장 중에 현재 12개 단체가 공석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에는 서울시체육단체장을 단단한 기업에서 서로 맡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와서는 예를 들어 관에 어떤 도움이랄까 이것이 전보다 많이 약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단체장 맡기를 꺼려하는 현재 그런 실정입니다.

대답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엘리트체육, 학교체육은 정책적으로 국가에서 육성해야 될 이런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요. 회장이신 시장님이 나서거나 그렇지 않으면 사무처장이 어떤 재정지원을 기업이나 이런 데 부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여의치 않는 그런 실정입니다.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崔桂洛 委員 그것이 아니라 본위원이 알기에는 몇 년 전부터 회장직을 맡는 분들한테 인센티브라든가, 별안간에 줄어들었기 때문에 꺼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事務處長 李明源 맞습니다.

○崔桂洛 委員 사실 회장을 맡으면서 이것저것 포상을 한다든가 하면 말지 말라고 해도 달려들 거예요, 그 자리한 자리 달라고.

물론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 체육회에서도 국가에 계속 건의를 해야 되고 서울시 시장님께서도 계속 건의를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여기 체육청 소년과장님도 나오셨기 때문에…….

○文化局 體育青少年課長 白武景 네, 여기 있습니다.

○崔桂洛 委員 본위원이 상임위원회 때마다 꼭 당부드리는 말씀인데요, 물론 적은 예산이지만 그 예산만이라도 일선학교에 내려보낼 적에 적시적소에 내려보내 주십시오.

지금 서울시에 보면 초등학교나 중학교 축구부나 상당히 열악해요. 학부모들이 불쌍해 죽겠어요. 그런데 그나마 조금씩 나오는 보조금마저도 통사정을 해도 안 준다 이거야. 그리고 체육복도 맞춰 입으려면 봄에 맞춰 입을 것을 보통 1월에 줘야 봄에 맞춰 입지 5월에 봄에 맞춰 입을 체육복 값을 주면 그것을 맞춰 입겠냐고.

이런 부분들이 일선 현장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을 갖고 있고 물론 우리 서울시체육회에서 도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앞으로는 일선학교에 그런 부분들을 잘 예산을 배정을 하셔야 또 일선학교에서도 감독이나 이런 분들이 사기 양양 돼서 열심히 하고 선수들을 육성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 보니까 자꾸 부정이 생기는 거예요.

감독들이 자기 제자들 좋은 학교에 보내려고 여기 저기 로비하고 학부모한테 돈 받고, 그것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잖아요. 현실이라고, 웃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그 학생을 갖고 있는 학부모는 비장한 각오예요. 죽기 아니면 살기로 간다고. 왜, 내 아이 대학은 보내야 되겠으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 서울시체육회에서 뭔가 뒷받침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국가만 따지지 마시고 서울시에서 뭔가 자성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基星 최계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 위원님.

○金民 委員 김민 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이 말씀하시죠.

사무처장님 기업을 하시다 맡으셨네요? 보니까 예산도 부족하고 어려운 자리인데 큰 역할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기 설립목적에 보면 체육에 보면 학교체육하고 생활체육이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체육에는 크게 나뉘어서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으로 나누어지는데 보고에 보면 생활체육 부분이 많이 빠졌어요. 거의 언급이 안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빠진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여기 서울시체육회가 엘리트체육하고 학교체육하고 생활체육 같이 하는 것이죠?

○事務處長 李明源 아닙니다.

○金民 委員 생활체육은 따로 별도로 합니까?

○事務處長 李明源 생활체육은 생활체육협의회가 사단법인으로 따로 돼 있습니다.

○金民 委員 여기는 생활체육은 전혀 안 다루고 학교체육만 하고 있습니까?

○事務處長 李明源 저희가 일부 생활체육에 관련하고 있습니다만 포괄적인 이런 생활체육은 생활체육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金民 委員 프로그램이라든가 모든 것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까?

○事務處長 李明源 맞습니다.

○金民 委員 그러면 거기는 어디 어느 부서에서 관할하나요? 그냥 서울시 문화체육과에서 총괄해서?

○事務處長 李明源 문화관광부에 사단법인으로 등록이 돼 있고 서울시 생활체육협의회라고 전에 의장 지내신 문일권 의장께서 회장으로 계십니다.

○金民 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 인원구성을 보면 정원 24명, 현원 24명이고 밑에 성동 39, 열린금호 25 이것은 별도 인원입니까, 아니면?

○事務處長 李明源 24명은…….

○金民 委員 체육회에서 근무하는 인원이고, 이것도 서울시체육회 인원이 아닙니까? 일단 소속돼 있는 인원이 아닙니까, 별도로 보는 것입니까?

○事務處長 李明源 별도 인원입니다.

저희가 수탁운영을 하면서 체육전문가들을 공채를 해서…….

○金民 委員 인원만 제공해 주고 체육회에서는 관할하지 않는 독립된?

○事務處長 李明源 저희가 관리운영만 하고 있습니다. 수탁한 기관의 예산으로 인건비를 주고 있습니다.

○金民 委員 인원구성이 조금 이해 안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생활체육하고 제가 연결해서 생각을 해 봤는데 지

금 예산이 많이 부족하고 또 실적도 서울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넉넉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인데, 그러려면 회장을 영입해서 회장이 후원금을 내놓든가 이런 쪽으로 하고 있는데 개인이 회장으로 해서 많은 돈을 내기에 역부족이고 그러니까 회장을 안하려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지금 생활체육이 많이 활성화돼서 각 지역에 보면 배드민턴, 조기축구, 테니스 많이 활성화 돼 있거든요.

그러면 각 지역에 있는 생활체육회하고 학교체육을 한번 자매결연으로 맺는 식으로, 양궁은 어디 구의 조기축구회랑 자매결연을 맺어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생활체육을 하는 사람들은 체육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학교체육이 어렵다면 많은 돈은 못 내더라도 조금씩 내주면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새로운 대안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항상 회장만 의존하지 말고 그런 사람들을 각 지역에서 운동하는, 생활체육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자매결연을 맺어서 조금씩 도움을 줄 수 있게 하면 그것이 오히려 좋은 대안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基星 김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이 굉장히 도움이 큼니다.

예를 든다면 CEO형, 물론 우리 사무처장도 사무처장 자리에 국한돼 있으면 안 됩니다. 사무처장이 할 수 있는 역할이라는 것은 지금 16개 팀의 팀장이 아직 확정이 안 됐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바로 역할을 분담을 해서 모시고 오는 것이 사무처장님의 역할인 것으로 저는 생각

됩니다.

따라서 경기도와 서울의 비교표를 보시면 아시지만 서울은 각 종목의 사람수가 188명인데 경기도는 684명입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이렇게 해 놓고 1등을 해야겠다는 마음자세가 안 되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여기 보면 팀명이 거의 고양군청, 포천군청 각 지방 군청이 하나씩 맡아서 운영하듯이 우리 CEO형 사무처장께서도 서울특별시 25개 구청에 협조공문도 보내시고 직접 찾아도 가서서 그렇게 거금이 안 들어가는 경기단체를 만드시 하나씩 맡아주실 것을 당부해 보십시오.

또 이런 것이 모이다 보면 만드시 좋은 성과가 오리라 믿고요, 한 가지 더 당부드릴 것은 조금 전에도 생활체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만 물론 생활체육이 서울특별시체육회도 소속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체육이 공교롭게 또 어떤 사단시스템이 있는 것으로 저도 기억이 됩니다. 물론 그 생활체육이 나쁘다 좋다 가타부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어려울수록 뭔가 공감대를 형성해서 흡수통합을 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괜히 그렇지 않아도 서울시 예산도 없으면서 생활체육이 이원화됐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무처장은 이것을 조속한 시일 내라고 표현하기는 뭣하지만 가급적이면 의논을 잘 하셔서 서울시의 생활체육회는 하나지 두 개 이원화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셔서 한번 이룩해 보십시오.

다음은 유선목 위원님.

○俞仙穆 委員 유선목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 힘드시죠?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처장님이 지금 잘 모르셔서 그런가본대 각 구별로 서울시가 몇 년 전부터 가령 양천구 같은 경우에는 테니스 이렇게 해서 지정해서 육성하는 종목들이 있어요. 지금 모르셔서 답변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각 구마다 특정 종목을 서울시에서 처음에는 일부 보조를 해 주고 연차적으로 보조금을 떼어서 양천구 같은 데서는 전액 구비로 해서 테니스선수단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는 구가 있을 것입니다. 찾아보श्य요, 그렇죠?

(「12개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서울시에서 직장운동부를 운영하고 계신데 이것은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은 부분입니까?

○事務處長 李明源 위탁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俞仙穆 委員 예산도 서울시로부터 받는 것이고요?

○事務處長 李明源 예산도 서울시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俞仙穆 委員 저는 지금 이것을 보니까 선수가 총 59명에 총감독제로 운영하고 있어요.

○事務處長 李明源 여기 총감독제라고 나왔는데 총감독이라는 것이 사무처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俞仙穆 委員 운동에 관한 직접적인 훈련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데 지금 제가 궁금한 것은 2001년부터 2002년도까지라도 이 선수들을 위탁해서 우리가 관리운영하면서 실적 같은 것도 나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여쭙겠습니다. 지금 7쪽에 각 학교 체육 육성지원 문제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신 최계락 위원도 관심을 가지고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각 학교에서 서울시체육회로부터 신청이 왔다거나 이곳에서 조사한 현황 중에 각 초·중·고등학교의 체육이라든지 씨름이라든지 특기체육 교육하는 데가 있어요, 선수단 구성해서. 그 현황은 어떻게 되며 우리가 보조금을 내려보내는 현황도 조금씩 차등이 있는 것으로 알아요 제가 현장에서 몇 군데 민원을 받은 바로는. 제가 오늘 나가면 이것을 꼭 알아보리라 이렇게 하고 왔는데요.

가령 예를 들어서 구로초등학교인가 구로중학교인가 거기에 체육부가 있어요. 체육부가 있는데 모든 선수에 대한 뒷바라지가 학부모들 전액부담입니다.

그래서 만약 그런 학교에 어떤 육성을 하는 기준을 오래된 순서대로 이렇게 정할 것이 아니라 전국체전이나 우리가 공식적인 경기에 참여했을 때 몇 등까지를 한 실적이 있는 학교는 차등지급을 한다든지 이런 기준을 마련해 놓지

않으면 이것을 언제까지 대한민국 청소년에 대한 체육진흥이랄지 이런 것들이, 사실 서울시가 2등을 하고 3등을 하는 것 나 당연하다고 봐요. 그것은 인과론적인 귀결이야, 피해갈 수 없는.

왜냐 하면 그렇게 어린 싹들을 체계적으로 키워놓지 못했으면 그것 다 감당하는 수밖에 없죠, 그 결과를. 그런

데 이런 공식적인 기준이나 룰이 없이 그냥 중구난방 지원하다 보니까 정작 육성하고 가능성이 있고 키워줘서 성과가 있을 곳에는 제대로 투입을 못하는 거예요. 어때요? 누가 답변하시겠어요, 이 문제. 처장님 답변 못하시면 부장님 하십시오.

○運營部長 徐正吉 안녕하세요? 체육회 운영부장 서정길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가지 중 시청운동부부터 제가 먼저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저희들이 시청 운동부 관리위탁을 맡아서 경기 결과는 중요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부산아시아게임에서 저희 시청에서 금메달 3개를 땀습니다. 조호성 선수가 사이클에서 2관왕을 했고 복싱에서 금메달 김기석 선수가 땀습니다.

그리고 전국체육대회에서 저희들이 금메달 12개, 은메달 6개, 동메달 4개 총 3,500점을 땀습니다. 역대보다 작년이 최고 좋은 성적을 거뒀음을 일단 시청 운동부 보고로서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학교체육문제입니다.

학교체육문제는 저희 서울시에 현재 등록돼 있는 인원이 2만 4,000명 정도가 선수등록이 돼 있습니다.

이중에서 일반선수는 4·5,000명 되니까 결과적으로 초·중·고 학생 선수는 1만 8,000명에서 1만 9,000명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까지 교육청에서는 초·중·고 소년체전 위주로 하다보니까 교육청에서 소년체전 초·중에 집중적인 관리를 했고 서울시체육회에서는

고등학교, 대학교, 일반팀을 집중 육성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 저희들이 서울시체육회에서 매년 5억을 교육청으로 지원하여 교육청에서는 각 자치교육청별로 지원해서 그 일선팀으로 지원금액이 5억 정도가 매년 갔습니다. 이것이 평균 한 학교에 200만원 되는데 이것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년체전 선발팀에 한해서 나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년체전에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선발되지 않은 팀에게는 전적으로 학부모들 위주로 운영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희 체육현실이 이만큼 안타깝고 현실정에 대해서 저희들도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이 예산마저 삭감이 된 상태입니다. 위원님께서 저희 예산을 좀더 헤아려주신다면 이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일선 초·중·고학생 꿈나무부터 육성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俞仙穆 委員 부장님, 잠깐 서 계세요. 제가 질문을 몇 가지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꼭 필요한 예산인데 전액 삭감된 것은 집행부의 이것을 관철시키려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고 저는 반대로 생각해요.

○運營部長 徐正吉 인정하겠습니다.

○俞仙穆 委員 그러면 나머지 지금까지 이렇게 해 왔던 것들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 그 결과는 더욱더 악화될 것 아닙니까, 전보다는. 그러면 그것 누가 책임질까요?

○運營部長 徐正吉 어려운 여건이지만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俞仙穆 委員 전액 삭감됐으면 그나마 5억을 가지고 각 교육청에 나누어줬던 것들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運營部長 徐正吉 가능하시면 추경에라도 살려주시면…….

○俞仙穆 委員 저는 시의원들한테 돌리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저도 시의원이니까. 왜냐 하면 집행부가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수예산이라고 했으면 끝까지 관찰시킬 수 있었어야죠. 위원들이 귀머거리입니까? 못 알아들어요? 제가 볼 때는 집행부의 의지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예산을 얼마만큼 투입하느냐, 얼마나 고급화된 훈련을 할 수 있는 여건과 상황을 만들어주느냐에 따라서 성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은 옛날 배고파서 운동하는 것하고는 틀리다고 봐요, 시스템의 차이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투입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열심히 다니면서 설명을 하셔야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각 구별로 특기종목을 하나씩 시하고 매치해서 하고 있는 부분 있죠?

○運營部長 徐正吉 네, 하고 있습니다.

○俞仙穆 委員 그것을 통계를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運營部長 徐正吉 알겠습니다.

○俞仙穆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基星 유선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승업 위원님.

○林承業 委員 임승업 위원입니다.

지금 시체육회가 있고 구도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구로 지원이 있습니까?

○事務處長 李明源 전혀 없습니다. 자치구청장이 당연직 회장이 되셔서 구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林承業 委員 그런데 세출에 61억이 되어 있고 65억이 수입이 되는데 4억은 어디에 씁니까?

○事務處長 李明源 우리 총무부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林承業 委員 네.

○總務部長 金容澤 총무부장 김용택입니다.

그 3억에 대한 대한체육회보조금은 소년체전출전비, 훈련비에 2억이 투입되고요. 1억은 전국체전 포상비, 금·은·동메달 획득자에게 주는 7,500만원하고 시민체육에 2,500만원이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林承業 委員 기타수입이 8,000만원 된다고 하는데 기타수입은 어디에서 수입이 되는 것입니까?

○總務部長 金容澤 기타수입은 저희가 서울시보조금에서 받은 이자수입이 주로 되고요, 그것은 전액 다시 반환합니다. 결산할 때 서울시로 반납하는 예산입니다.

○林承業 委員 그런데 체육회가 시장님이 회장직을 맡고 있고 부회장님은 시의회 부의장님이 맡고 있고, 또 우리 위원장님도 맡고 있는데 그런데 11억원이라는 예산이 삭감이 되었는데 왜 삭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總務部長 金容澤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서울시에 95억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61억으로 확정이 되었는데 삭감

된 것이 학교체육진흥비 5억하고 국제교류예산인데 그 예산이 삭감된 이유는 서울시에서…….

○林承業 委員 조금 전에 유선목 위원도 말씀을 하셨듯이 체육회에서 성의가 부족했던 것 아니에요?

○總務部長 金容澤 저희가 그래서 마지막 문교위원회에서도 그 예산을 다시 살려줘서 예결위까지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결위에서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작년에 문교위에서는 다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林承業 委員 그런데 삭감규모를 보면 가장 기초적으로 필요한 학교체육진흥비가 전액이 삭감이 되었는데 집행부가 성의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이런 것이 삭감될 정도면, 조금 전에 최계락 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학교에 조기에 지원이 안돼서 민원이 오고 시의원한테 민원이 오고 했는데 과장님이 선별해서 지원하고 잘못된 점이 많이 지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한 민원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규모 보면 경기도하고 비교가 안될 정도로 이런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등수야 관계 없이 체육을 활성화하고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예산지원이 필요한데 오히려 증액은 안되고 삭감된 데 대해 우리 처장님도 아쉬워했지만 집행부가 꼭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을 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부족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좀더 홍보를 해서 삭감이 안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基星 임승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숙 위원님.

○金明淑 委員 김명숙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전국체육대회 예산을 보니까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61억 중에 62%를 차지하고 있어요. 마치 서울시체육회의 존립목적이 전국체전을 위해서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여기에 투입이 되었는데 설립목적에 보면 여러 가지 우수선수 양성이라든가 아마추어 경기단체 통괄지도, 학교체육·생활체육진흥, 체육의 범시민화 이렇게 목적은 상당히 포괄적으로 해 놓고 실제적으로 예산투입의 부분이 너무나 불균형하다, 편차가 심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이렇게 계획이 세워졌습니까?

○運營部長 徐正吉 운영부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이 그것이 곧 결과적으로 학교체육이고 일선체육의 진흥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만 5,000명 중에서 끌고루 할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학교체육이고 우수선수 육성이 결과적으로 전국체전과 일관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산을 쓰는 것이 결과적으로 선수를 육성하는 것이고 팀에 지원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다만 예산과목상 전국체전이라고 표현한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서울시의 우수선수 육성과 학교 팀 육성에 지원하는 것하고 똑같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金明淑 委員 그렇다면 기성체육 위주로, 아까 유위원

님께서도 학교꿈나무 육성정책 이런 것하고 너무 무관하게 학교체육진흥 부분 이 섹터를 보더라도 실제로 7억원 정도가 소요예산으로 잡혀 있는데 포괄적으로 여기 설립 목적에 맞지 않게 너무 기성체육 위주로 예산이 배정되어 있다는 부분을 볼 수 있고요.

아무튼 우수선수 육성도 좋고 학교체육 육성도 좋고 한데 여러 가지 이 목적에 맞게 정말 일등 한 명을 배출하기 위한 체육정책도 좋고 그렇지만 체육의 범시민화에 맞게 그런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끝까지 백만을 양성하는 이런 여러 가지 포용성 있는 정책의 방향을 잡고 거기에 구체적인 계획도 잘 맞게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11쪽에 보면 체육회홍보지 발간이 매월 8,000부 이것 매월 8,000부 하는 것입니까?

○運營部長 徐正吉 네.

○金明淑 委員 그리고 오늘 이것 책자 너무 무거워서 들 수도 없는데 이것은 1년에 몇 권 해서 어느 분야에 배포되는 것입니까?

○運營部長 徐正吉 그것은 체육회 50년사에 대해서 처음 만든 것입니다.

○金明淑 委員 이것 만드는 데 예산투입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運營部長 徐正吉 2억 정도 됐습니다.

○金明淑 委員 그런데 저는 이것을 보면 과연 이렇게 해서 배포하면 효과가 있는지 너무나 고가의 비용만 드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이것이 기념으로 처음 만든 것입니

까?

○運營部長 徐正吉 네, 지금 대한체육회에서도 70년사, 50년사 만들고요. 저희들이 체육회 50년사가 처음 되다 보니까 이것을 만들어서 관공서, 각 대학의 도서관, 학교 모든 곳에 서울시체육의 50년사를 보여주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다 배포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많이 든 것 같습니다.

○金明淑 委員 앞으로의 계획은…….

○運營部長 徐正吉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金明淑 委員 그리고 제가 체육회 홈페이지를 봤는데 주로 기본조직 소개라든가 관계자 사진, 취임식 등 내부 행사 사진 이런 것밖에 없거든요. 주로 여기를 클릭했을 때 그래도 체육관련 일반자료실이 충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봤고, 그리고 자료실 운영의 취지라는 것이 뭘니까? 딱 클릭해서 일반적인 자료에 접근할 수 있을 때 충실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자료나 홍보지도 오프라인 상에서보다도 사이버공간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제가 지난번 시정공보팀에 여러 가지 홍보와 관련해서 모바일사업을 구축하면 이러한 홍보부분도 다 연계해서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아마 지금 활발하게 계획중에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공보팀하고 서울체육회 홍보부분도 연계해서 모바일을 통해서 시민체육의 홍보부분을 각 개인에게 메시지를 푸시해 주면 상당히 홍보효과를 제고할 수 있다

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 보시고요.

16쪽에 보면 아까도 김귀환 위원님 재정자립을 위한 수익사업 추진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요, 체육문화 등 공익관련 수익사업 추진 했는데 주로 수익사업 추진이라면 좀더 현실성 있게 하지 않고 주로 임대나 단순한 민간인에게 점포를 분양하는 식으로 흐를 염려가 있어서 미리 그런 쪽은 지양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청소년문화사업을 운영해서 수익을 내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청소년문화사업 부분을 자립도 기반의 근거로 삼지 말고 제발 이런 쪽을 기업홍보라든가 이런 쪽으로 유치해서 수익을 내야 하지 않겠느냐 그것을 대안으로 지금 계획중에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일반시민들의 체육 친목운동경기에 기업홍보를 유치하면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체육회니까 운동기구라든가 소모품 관련 쇼핑몰을 운영한다든가 이런 쪽도 생각을 해 보시고, 또 스포츠 게임사이트 그런 것을 개발하면, 그러니까 제가 혹시 청소년문화사업 그러면 일반적으로 서울시내에 청소년수련관도 많아요. 거기에서 하는 부분하고 똑같이 되면 상당히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미리 우려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답변 좀 해 보세요.

○事務處長 李明源 재정자립을 위한 수익사업 추진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안입니다. 이것을 넣은 것은 대한체육회에서 각 시·도지부에 체육회도 수익사업을 하자 해서 대한체육회에서는 자체적으로 경기도 어디에 땅이 있는데 거기에 쇼핑몰 같은 것을 짓고 또 골프장을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대한체육회장께서 시·도지부 사무처장들한테 물론 시·도지부에서 예산이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시·도지부가 독자생존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이런 말씀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것은 송구스럽습니다만 저희들도 한번 여러 가지 검토해 보겠다 하는 의도에서 집어넣은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계획하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金明淑 委員 그러니까 계획을 하실 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많은 사람들이 접근이 가능하면서도 일반적인 부분의 아이탬으로서 실례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事務處長 李明源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신중하게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金明淑 委員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事務處長 李明源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基星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운기 위원님.

○金雲基 委員 김운기 위원입니다.

체육회 사무처장으로 오신 지가 얼마 안돼서 업무과악도 제대로 못했으리라고 보는데 우선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들 말씀하셨습니다만 엘리트체육하고 체육회에서 관여하지 않는 생활체육협의회 있죠? 국민생활체육협의회, 그다음에 생활체육진흥협의회인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분리를 확실히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事務處長 李明源 지금 대한체육회, 다음 지부로 서울

시체육회, 제주도체육회까지 있습니다만 여기가 소위 엘리트체육, 학교체육, 국가에서 관장하는 정책체육의 본산입니다.

여기하고 소위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생활체육이라고 체육부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해서 어떤 점에서는 조금 정치적인 목적이 있어서 지금 생활체육이 굉장히 활성화돼 있는데 지금 대한체육회에서 문화관광부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도 아마 청원을 넣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체육이 예를 들어 양분화 돼 있습니다. 생활체육과 체육회에서 주관하는 이런 정책체육, 학교체육 해서 보니까 예산이 이중으로 낭비가 되고 또 하나는 생활체육이 좋은데 각 기초단체 쪽으로 갈 때 정치적으로, 좋게 말하면 이리하고 어떻게 보면 악용이 되는 이런 것이 있다고 합니다.

○金雲基 委員 됐습니다. 그 정도면 답변 됐고요.

우선 체육회라고 하면 지금 현재 예산을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서울시체육회에서는 예산이 적다, 예산이 매년 지금 현재 줄어드는 현실이에요. 중요한 파악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방금 처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꼭 그것이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맞습니다. 우리가 88올림픽을 유치했을 때 유치해 놓고 과연 우리 대한민국에 올림픽을 하도록 줄 수 있을 것이냐에 의아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올림픽 조직위원회 IOC에서. 그것이 바로 뭐냐하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엘리트체육이나 하는 정도 수준의 국가이지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대한민국

조사를 해 보면 체육단체나 사회체육 또 소위 말하는 생활체육 이런 것이 전혀 조직이 되어 있지 않은 나라다. 그런 국민성을 가진 나라가 과연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을 것이냐를 의아스럽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바로 만든 것이 생활체육이라는 생활체육협의회를 만든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명맥을 유지하고 일부는 정치적인 목적이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 서울시체육회를 놓고 봤을 때도 예산만 가지고 얘기를 해야 할 그런 시점이 아닙니다.

국가정책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 사실 우리가 국제적으로 나라들을 보면 체육을 위주로 해서, 엘리트체육을 위주로 해서 국위선양을 하는 데는 사실상 큰 몫을 차지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이 밑거름이 되어서 그 국가에, 어떠한 국가에 경제적인 성장이 다 이루어지고 했을 경우에는 조금은 등한시되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우리 대한민국도 보면 이제는 만불의 시대다, OECD 가입을 했다 이런 경제적으로 성장이 됐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 국가정책이 이제는 엘리트 중심적인 것이 아니고 이제는 국민의 건강을 우선 찾아야 되겠다. 국위선양을 하는 데 가서 금메달, 은메달 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국민의 건강을 중점적으로 찾아야 되는 그런 사회가 된다 이렇게 때문에 생활체육을 집중육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예산이 자꾸 줄어들고 사실상 우리 서울시도 그래요. 국가적으로 국내적으로 봐도 경기

도에 진다고 예산의 대비, 실적대비에 대한 보고서가 나오는데 서울은 그것만큼 지금 현재는 뭔가 넉넉하고 여유로움이 있다는 얘기로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줄어드는 것으로 봐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정말로 우리 서울을 더 국내에서 알리고 일등서울을 만든다. 체육으로 서울을 알릴 필요가 있다는 목적이 있다면 여기다 더 투자를 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서울시체육회가 대한체육회 산하지만 명맥유지예요. 물론 처장님 이하 우리 서울시체육회 관계 직원들은 어떻게든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인으로서 기왕지사 대한체육회 산하에 있는 담당 공무원 내지는 직원으로 우리 서울시체육회를 활성화시키고 어떤 국내 소년체전이든 전국체전 나가서 좋은 성적 올리고 수준 높은 엘리트 발굴하자. 꿈나무들을 키워서 정말 국가대표도 만들고 국제적으로 유명한 것을 만들자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뒷받침이 되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실정에서 각 학교 업무계획을 보면 신설팀 창단 지원한다, 순회 코치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 자체도 사실 형식적인 것이라고요.

과연 지금 여기 있는 직원들 전문가들이 얼마만큼 그 종목에 유능한 사람이 있어서 학교 어느 팀 창단한다, 창설한다 했을 때 가서 지원을 뭘로 하겠느냐. 창단을 하면 그 자체에도 코치가 있고 감독이 분명히 있거든요. 순회 코치 한다, 어떻게 보면 순회 가서 한번 보고 오는 것으로

끝나는 정도라고요.

그렇게 모든 것이 현재는 현실적으로 형식적으로 다 돼 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예산만 타령하고 정말로 이것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면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부터도 많이 올려야죠.

처장님, 소신을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지금이라도 엘리트체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들여서라도 선수 발굴하고 엘리트 키워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까?

○事務處長 李明源 그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생활체육에 관해서 조금 더 부연해서 보고를 드린다면 지금 정부에서 생활체육을, 소위 엘리트체육하고 통합하는 작업이 올해 중에 시작이 될 것입니다.

○金雲基 委員 앞으로는 통합을 해서 나누어 질 것입니다.

엘리트체육하고 이런 일반 사회인들 국민들이 하는 생활체육으로 구분이 돼서 그런 정책이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나와야 되는 것이고.

물론 그때까지는 국가적인 정책사업이고 그 안에 지금 현실적으로 있는 우리 서울시체육회가 발전되고 육성이 될 수 있도록, 활성화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야 될 것이 처장님 이하 우리 서울시체육회 직원들이 할 일이란 말이죠.

예산 보면 전국체전에 소요되는 예산이 거의 반이에요. 60억 중에서 30억 정도가 그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그것이 꿈나무 선수를 키우고 지원하는 데 있어서

과연 얼마만큼 힘이 될 것이냐, 학교도 나름대로 서울시교육청이 해도 각 학교마다 한 종목의 체육종목을 만들어라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그것 자체도 학교 교장들이나 또 사립학교 같으면 이사회에서, 재단에서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이사장 내지 교장이 체육에 대해서 얼마만큼 관심이 있느냐, 어느 사람들은 그런 것이 있어요. 이사장이나 교장도 관념이 다르거든요. 운동선수 더운데 땀 흘려가면서 뭐 하고 앉아 있느냐. 여름에 더우면 체육시간이 아니라 그늘에 앉아서 쉬지 왜 그러고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가진 학교의 교장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체육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런 사람은, 그러한 교장이나 이사장은 어떻게든지 내가 종목을 하나 키워야 되겠다는 이런 것을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는 공문 내려보내서 어느 종목 하나씩 만들어라 또 각 자치구에 팀 하나씩 만들어라 그러니까 만들어 놓고 형식적인 것이 되고.

지금 전국체전이나 우리가 소년체전에 동계나 하계 나갈 때 선수발굴 어떻게 하고 계세요?

○事務處長 李明源 예선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金雲基 委員 예선대회를 해서 발굴하는데 그러면 그 선수들 정말로 평소에 다니면서 그러한 우수선수가 있는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프로축구를 봤을 때 대학에서는 전국의 각 시즌 연맹들의 경기가 있을 때마다 지방으로 다니면서 평소 봄부터 6·7월까지는 다니면서 선수 발굴하고 있거든요.

어느 선수가 잘 뛰는가 체크를 하고 우리 학교에 스카

우트도 해 오고, 그런 정도 가지고 있죠? 물론 국가대표도 마찬가지예요. 국가대표 감독이나 코치들은 각 대학에서 있는 팀이든지 이런 데를 가서 운동하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체크해서 받아온단 말이죠.

우리 서울시체육회에서는 전국체전에 참가할 선수들을 발굴하는데 무슨 종목에 몇 명 어떻게 어떻게 발굴해라, 잘하는 사람 있으면 보내라 이런 식의 역할 외에 정말 구체적으로 가서 선수들을 뽑으려고 노력을 하고 뽑아올 수 있는 그것이 제도가 돼 있느냐 이것이 의심스러운 일이고. 숫자만 맞춰서 출전시키고 그것이 현실인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事務處長 李明源 각 학교별로, 저희는 사실 운영팀, 훈련팀이 있습니다만 각급 초·중·고·대 여기서 육성된 선수들을 예선경기를 통해서 우수한 팀이나 우수한 선수를 전국체전에 내보내는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경기장을 찾아다니면서 발굴하고 하는 것은 못하고 있습니다.

○金雲基 委員 그것을 못하고 있는데 못하고 있으면서 종합적인 성적이 뒤진다고 해서 뒤지는 것을 예산타령만 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事務處長 李明源 그것이 또 바로 예산하고 직결이 되는 것이…….

○金雲基 委員 물론 예산을 많이 주면 더 좋은 선수 발굴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事務處長 李明源 예를 들어서 육상이다 축구다 종목별 경기 자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또 자기네들이 스카

우트하고 이러는데 예를 들어 서울시육상경기연맹에서 저 친구는 경기도에 뺏기면 안 됩니다. 사실은 경기도가 잘 해도 한국체육이 좋아지는 것인데 서로 경쟁체제가 돼 있어서 각종 경기 자체에서 스카우트 발굴 책임을 맡고 있고 저희들이 부설해서 지원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金雲基 委員 1년에 한번 정도 하는 업무보고에서 제가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사실. 궁금한 것이 많은데 나중에 별도로 내가 전화를 하고 물어볼 것은 물어볼 것인데 우리 시간이 없고 동료위원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으네요.

일찍 마쳐달라고 그러니까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 金基星 우리 김운기 위원님은 생활체육을 실천하고 계시고 또 거기 가담하고 계시기 때문에 체육에 관심이 많으신 위원님이십니다.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 적절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개인적으로 김운기 위원님께서 체육에 대해서 문의사항이 있거나 그러시면 적극적으로 답변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강일 위원님.

○李康一 委員 이강일 위원입니다.

간단 간단하게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질문하기 전에 서울시체육회 프로그램에 관계돼서 시민들 중에서 썬 것이 비지떡이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대민서비스업무 쪽에서 요금 받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저렴하게 하고 있죠? 저렴하게 하고 있는데 싸다 보니까 서비스 질이 떨어진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죠, 맞아요? 인정해요?

○總務部長 金容澤 네, 서울시조례에 책정돼서 그 가격을 받고 있습니다.

○李康一 委員 가격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차피 가격이 저렴한 만큼 시나 구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그만큼이 싼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러다 보면 시민들이 느끼는 서비스의 질은 같아야 되는데, 민간업자들이 하는 것하고. 약간 불친절하거나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다는 얘기를 몇 번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3월 10일부터 체육역사전 세종문화회관 별관에서 하고 있습니까? 저는 소식 못 들었는데 만약 하게 되면 앞으로는 본위원회도 연락을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事務處長 李明源 죄송합니다.

○李康一 委員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 중에서 해외교류 예산이 삭감이 되었었죠? 삭감된 이유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事務處長 李明源 총무부장이, 제가 1월 17일에…….

○李康一 委員 알겠습니다. 이번까지만 총무부장이 하시고 다음에는…….

○總務部長 金容澤 총무부장입니다.

저희가 북경·모스크바 친선교류가 10년 전부터…….

○委員長 金基星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두 분 부장님은 마이크 앞으로 나오세요. 마이크를 적절하게 사용하셔서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總務部長 金容澤 저희가 10년 전부터 북경·모스크바 친선교류를 해 왔는데 작년에 저희가 소요된 예산 1억 5,000만 원을 서울시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것이 삭감이 되었는데…….

○李康一 委員 어디에서 삭감시켰어요? 시 집행부에서 삭감한 것입니까?

○總務部長 金容澤 네, 시 집행부에서 의회에 올라가지 않았고요. 다시 문교위에서 살려서 예결위까지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康一 委員 이것도 동료위원께서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작년 11월에 제23회 정례회 때 저희 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제적인 망신이 될 수 있다고 그때 당시 체육청소년과장에게 상당히 질타했던 기억이 나서 하는 얘기에요.

예산 수립시에 적정성을 파악하는 것,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아주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했으면 노력을 해서라도 했어야 된다는 얘기를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얘기를 하셨으니까 앞으로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總務部長 金容澤 알겠습니다.

○李康一 委員 그렇게 노력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추경에 확보해 달라는 것은 아주 무책임한 것이니까 앞으로

조심하십시오. 본위원회 이번에는 넘어가는데 또 이런 일이 있으면 추경에도 확보를 안해 줄 것입니다.

○總務部長 金容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李康一 委員 그 다음에 체육진흥기금에 관계해서 2000년 11월 30일에 다행히도 서울특별시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總務部長 金容澤 네.

○李康一 委員 체육진흥기금이 다른 타 시·도에서는 상당히 많이 지원이 되고 기금들도 꽤 확보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서울시 체육진흥기금의 지금까지의 기금 진행과정을 알고 싶네요.

○總務部長 金容澤 3년 전에 500억 기금 조성을 위해서 서울시에서 체육진흥기금조례가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50억씩 해서 현재 153억이 적립되어서 서울시기금으로 체육청소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康一 委員 기금을 조성하는 방법이 서울시 일반회계에만 의존하고 있습니까?

○總務部長 金容澤 네, 서울시 일반회계에서 50억씩 출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康一 委員 기금이 꼭 시의 일반회계에서만 조성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구적인 노력으로 기금확보가 더 빨리 되는 그 노력한 것이 없습니까?

○總務部長 金容澤 체육진흥기금이 또 자체기금이 있습니다. 현재 21억 기금이 있는데 이것은 1979년부터 그때 부회장단이 5,000만원씩 5명이 내서 그것이 이자증식으로

해서 21억이 있습니다. 그것을 계속 증식하고 있습니다.

○李康一 委員 증식이라는 부분은 이자증식으로 해석되는데요.

○總務部長 金容澤 이자증식이 대부분입니다.

○李康一 委員 수익을 남겨서라도 기금을 빨리 만들고 더 많이 만드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하는 얘기고, 시의 일반회계에서만 계속 기다리고 있어서 그렇게 하면 10년 걸리네요, 50억씩 하면? 상당히 오래 걸리고 10년 뒤에 가서 500억은 큰 돈이 아니에요. 그렇죠?

○總務部長 金容澤 노력하겠습니다.

○李康一 委員 노력한다는 얘기를 하면 기록에 남으니까 다음부터는 제가 그것 가지고 따지니까 대답하실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 조례를 읽다보니까 한 가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만 질문을 하고 끝내겠습니다.

조례내용 중에서 기금운용심의회를 구성한다고 되어 있어요. 기금운용의 주체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은 체육진흥담당국장으로 하고 했는데 체육진흥담당국장은 누구를 얘기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總務部長 金容澤 서울시 문화국장입니다.

○李康一 委員 문구가 어색해서 물어봤습니다.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基星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종화 위원님.

○徐鍾和 委員 서종화 위원입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하신 것을 전체적으로 보니 설립목적이 있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현안업무라는 것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목적하고 현안업무하고 제대로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만 구색 맞추기로 집어넣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지금 현실적으로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생활체육협의회라는 것이 있다 보니까 당초에 설립 목적으로 했던 생활체육진흥이나 체육의 범시민화 이런 부분들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목적이 조금 실제 내용에 있어서는 당초에 목적했던 것하고 바뀐 측면이 있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위원이 봤을 때는, 제가 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앞서도 잠깐 지적이 되었지만 재정자립을 위한 수익사업 추진 해서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공공체육시설 수탁 및 청소년문화사업 운영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공공체육시설을 수탁할 경우에는 거기에서 수익금이 발생하면 안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구민체육센터를 수탁 받아서 운영한다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은 전액 거기에 재투자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總務部長 金容澤 모든 세입은 다 들어가고 예산만 받아서 운영합니다.

○徐鍾和 委員 그러면 이것 재정자립하는 데 전혀 도움

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공공체육시설 수탁해서 한다는 것이?

○總務部長 金容澤 그러니까 수탁운영이 아닌 다른…….

○徐鍾和 委員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공공체육시설을 수탁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현안업무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세 번째로 재정자립을 위한 수익사업 추진 해 놓으시고 수입사업을 추진하는 것 중의 하나로서 대표적인 것으로 공공체육시설을 수탁한다고 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금 전에도 인정을 하셨듯이 공공체육시설 수탁해서 수익사업이 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재정자립에 전혀 기여하는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재정자립을 위해서 수익사업 추진하는 것은 좋은 데 적합하지 않은 사업을 구색 맞추기로 끼워넣은 것밖에 안된다는 얘기죠. 재정자립이 서울시체육회를 유지 발전시켜 나가는 데 꼭 필요한 것이라면 재정자립을 하기 위한 정말 수익이 되는 그러한 현실적인 사업을 추진목표로 세워놔야지 실현이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재정자립에 전혀 기여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것은 잘못된 거죠?

○事務處長 李明源 그렇습니다.

○徐鍾和 委員 그러니까 업무보고 하실 때 그냥 듣기 좋은 말만 죽 나열해 놓고 이래서는 안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지죠?

○總務部長 金容澤 알겠습니다.

○徐鍾和 委員 그리고 앞서 우리 김운기 위원님께서 정

확하게 지적해 주셨는데 본위원회도 꼭 그 부분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본위원회 지역에서 즉 활동을 하다 보니까 생활체육협의회하고 구체육회하고 때로는 대립되기도 하고 마찰이 있고, 이것이 같이 힘을 합쳐서 한 조직이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것이 같은 조직에 있지 않다 하더라도, 즉 생활체육협의회는 별도로 존재하고 체육회는 체육회대로 있다고 하더라도 서로 협조해 나가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엘리트체육이 의미를 가지려면, 엘리트체육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밖에 나가서 메달 따서 국위선양하고 소속된 단체의 명예를 드높이고 하는 그러한 역할도 있지만, 또 하나는 엘리트들을 집중적으로 육성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경기력 향상을 가져와서 그것이 생활체육에 파급효과를 가져오고 이러는 데 또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를 보면 엘리트를 육성하는 것까지만 나와 있지 이 육성된 엘리트체육인들이 생활체육하고 어떻게 접목시켜서, 아까 말씀드렸던 엘리트체육인의 육성 두 번째 목적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실현하기 위한 그런 구체적인 방안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서 체육회를 끌고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해서 지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 처장님 새로 오셨지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事務處長 李明源 서위원장님 아주 좋은 질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적하신 부분이 다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익사업 이 부분은 저희가 일종의 안으로 대한체육회에서 이렇게 하자 하는 것을 저희가 조심성 없이 어떤 문자로만 보고드린 것 같아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생활체육하고의 관계, 엘리트체육 이것도 아까 김운기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관계를 제대로 정립해서 엘리트체육이 곧 생활체육의 발전이랄까 이것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연구하고 다음에 보고드릴 때 제대로 된 내용이 보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徐鍾和 委員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구체적으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가지시고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재정자립의 필요성, 또 그에 따른 구체적인 재정자립을 하기 위한 실천방안, 이것을 한두 달 안에 갑자기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시간여유를 가지고, 그리고 앞서 김운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을 어떻게 접목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체육회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계획안을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事務處長 李明源 알겠습니다.

○徐鍾和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基星 서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두완 위원님.

○夫斗完 委員 안녕하세요? 부두완 위원입니다.

새로 사무처장님께서 오셨으니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서울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우리 서울체육회 아닙니까? 그런데 서울시민 건강을 위해서 가장 중점적으로 두는 사업이 여기 안 나와 것 같아요. 여기에서 생각하시는 시민들을 위한 것이 뭘니까?

○事務處長 李明源 다시 되풀이되는 말씀입니다만 지금 서울시체육회는 엘리트체육하고 학교체육을 하고 있고요.

○夫斗完 委員 알아듣겠고요.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이것 있죠, 총 권수가 몇 개며 단가가 얼마며 견적서 받고 이랬던 것 있죠?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아까 2억 원 들어갔다고 했죠? 편집비, 인쇄비 이런 것 다해서, 총 몇 권 했죠?

○總務部長 金容澤 1,000권 했습니다.

○夫斗完 委員 1,000권 했으면 한 권당 얼마씩이죠? 20만원이죠?

○運營部長 徐正吉 총 예산이 2억 정도 들었고 인쇄비만 8,000만원입니다.

○夫斗完 委員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공체육시설 수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성동구민종합체육센터라든지 열린금호교육문화관, 이것 우리 체육회에서 하는 것입니까?

○事務處長 李明源 저희들이 수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夫斗完 委員 어떻습니까? 여기에서 이익이 발생합니까, 아니면 체육회 예산이 일부 들어갑니까?

○事務處長 李明源 이익이 발생해서 성동구청으로 다이관하고 있습니다.

○夫斗完 委員 그리고 회장 공석 경기단체의 회장 영입하는 것을 보면 지금도 단체장들을 보면 어떻게 서울산하에 있는 구청이라든지 지방공사 사장 이런 쪽에서만 자꾸 영입을 하려고 해서 제대로, 그 사람들 한시적으로 갖다놓으면 그 사람들이 애정을 갖고 하겠습니까? 경기단체장들이 세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할 생각을 해야지, 여기 추진계획도 보면 서울산하 지방공사 사장이나 자치구청장 선임을 유도하겠다는 것은 그 사람들 책임의식 없습니다. 애정을 안 가져요. 축구 좋아하면 축구 좋아하는 사람 기업 같이 하는 사람 영입하고 수영, 농구, 핸드볼 이런 쪽으로 해서 영입을 유도할 생각을 해야지 이런 문구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처장님 어떠세요?

○事務處長 李明源 16개가 공석인데 지금 네 분이 배드민턴, 역도 해서 지금은 12개 공석입니다. 이것이 1·2년만의 문제가 아니라 7·8년 동안 이렇게 계속 공석으로 돼 있다는 것입니다.

○夫斗完 委員 지금까지 공석이 됐다는 것은 사무처장이라든지 여기 수석부회장이라는 분들이 제대로 영입작업이라든지 신경을 안 썼다는 것이죠. 예산만 받고 집행만 하고 이랬다는 결과밖에 안 보이죠.

○事務處長 李明源 그래서 단체장이라는 것이 5,000만원

에서 1억 정도 사재를 출연해야 됩니다. 이것이 아까 우리 간사님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7·8년 전까지는 서로 하려고 그랬다는 합니다. 그런데 일종의 메리트가 없으니까 기업에서 덤벼들지 않으려고 그러고…….

○夫斗完 委員 그것이 아니라 경기단체에서 너무 파벌 싸움하니까 기업에서 메리트가 없게 느껴지는 것이 아닙니까?

○事務處長 李明源 그런 것도 있을 것입니다.

○夫斗完 委員 그것이 제일 많고 기업이라는 것이 여기서 참여하는 것이 뭘니까? 경기단체하면 자기 체육이라든지 자기 기업 홍보 목적으로 아니면 여러 가지 자기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세일을 잘 하면 충분한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여기 와서 자리싸움이나 하고 매일 그 밑에 사무처 직원, 매일 이런 과열음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분들이 안하는 것 아닙니까?

○事務處長 李明源 그런 부분도 많이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夫斗完 委員 사무처장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그런 것을 잘 파악하셔서 영입하실 때 제발 이런 말썽이 없게 열심히 할 테니까 해서 영입 잘 해서 공석중인 것 빨리 채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상입니다.

○事務處長 李明源 그러겠습니다.

○委員長 金基星 부두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질의를 아주 적절하게 잘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간략하게 얘기하면 설립목적과 현황이 상이한 점이 있는데 앞으로 보고할 때는 그것 취지를 잘 살리셔서 잘 해주시고 또 임승업 위원이나 유선목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11억 2,000만원 예산 깎인 것 이것은 집행부가 불성실한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은 거의 위원님들이 동감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행부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거기에 대한 만반의 대비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 여러 위원님께서 또 한 가지 지적한 것은 CEO형의 경기단체장을 영입을 하되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어떤 그 회사에 대해 광고효과를 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런 유명한 분들은 이사회에 명예이사라도 좋으니까 영입을 하셔서 좋은 서울시체육회 발전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명원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중점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업무에 적극 반영하거나 시정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서울특별시체육회가 수도서울의 엘리트체육 및 생활체육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우리 나라 체육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3월 17일 오전 10시 교육청 조례안심의와 동작교육청, 강북교육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9분 산회)

○出席委員

金基星 崔桂洛 俞仙穆 金貴煥
金明淑 金民 金雲基 夫斗完
徐鍾和 李康一 李致和 林承業
鄭淵熙 金興植

○專門委員

尹炳國

○出席公務員

서울特別市體育會

事務處長 李明源

總務部長 金容澤

運營部長 徐正吉

文化局 體育青少年課長 白武景